

2024 최종합격 수기

■ 제목: [제 33 회 공인노무사 합격 수기] 생동차(직장병행+전업) / 노동법, 민소 위주

#전업 수험생#직장인#인터넷 강의#학원#성실성#전업 수험생#직장인#인터넷 강의#학원#성실성

■ 하루 학습 계획 및 생활 패턴

직장 병행 시절에는 출근 전 3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 지하철에서 인강을 보거나, 판례를 외웠습니다. 전업 수험생이 된 후에는 하루 10시간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노동법 3시간, 행정쟁송법 2시간, 민사소송법 3시간, 인사노무관리 2시간으로 과목별 공부 시간을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이 많은 편인데, 잠을 줄이면 공부할 때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수면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깨어 있을 때 최대한 집중하며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 집안일할 때, 혹은 컨디션이 안좋아 누워있을 때에도 인강을 틀어놓아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 과목별 학습법 & 수강 강사 및 활용 교재

(1) 노동법: 김에스더 노무사님 / 23년도 1차 시험 공부할 때부터 에스더 노무사님 강의를 수강했고, 이후 노단기로 이적하셔서 고민없이 노단기 프리패스를 결제했습니다. 에스더 노무사님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에스더 노무사님을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던 강사님입니다. 우선 강의력이 너무 좋으시고, 판서가 깔끔하여 구조화 작업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2단 구성이라 한눈에 내용 보여 회독할 때 편리합니다.

i) GS0기(GS1기 생략): 동영상 강의 GS0기를 늦게 진입하여 GS1기는 건너뛰었습니다. 에스더 노무사님은 '판서 노트'라는 판례 flow가 구조화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시는데, 직장 병행하며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저에게는 자투리 시간에 해당 파일을 보며 판례를 기억해내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ii) GS2기: 실강 서술형 시험을 처음 치루다 보니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에

스더 노무사님은 문제의 소재와 사안의 적용을 어떻게 쓸지 포인트를 명쾌하게 짚어 주셔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 시험 공부로 인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상태로 모의고사를 응시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던 시기입니다. 특히 토요일에 다른 세 과목 실강 수업을 듣고 나면, 일요일 노동법 공부를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에스더 노무사님이 제공해주신 판례 녹음 파일만 듣고 모의고사에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iii) GS3기: 실강 매 회 전 범위로 모의고사를 진행해서 1주일에 1회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으나, 달성하지 못한 주가 많아 아쉬웠습니다. '핵심서술포인트'라는 자료를 제공해주시는데, 빠르게 중요한 부분만 훑어보기 좋아 적극 추천합니다. 강사님이 따주시는 두문자 외에 이 시기에 추가적으로 두문자를 스스로 만들어 외웠는데, 좀더 미리 따놓을 걸 하고 후회되었습니다. iv) 최종 한달 2일 1회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개별법 1일, 집단법 1일) 사실 GS3기 마지막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처참하게 나왔어서 직전에 노동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실제 시험 때에는 노동법이 고득점으로 나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에스더 노무사님께서 시험 직전에 블로그를 통해 꼭 챙겨가야 할 쟁점을 공유해주셨는데, 실제 올해 시험에서 그 중에서 출제되어 시험장에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2) 행정쟁송법: 정선균 박사님 / 박사님은 이번 시험을 기점으로 노무사 수험에서 은퇴를 하여 간략히 적겠습니다. 이해 기반으로 매우 풍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십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으셔서 용어도 낯설고 어려운 행정법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어렵다는 평이 있던데, 저는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 행정쟁송법이 워낙 어렵기도 했고, 답을 틀린게 많았기에 점수가 매우 저조하게 나올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60점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사님께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주시며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3) 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 행정쟁송법과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민사소송법을 선택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서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경우 선택과목을 바꿀지 고민했었는데, 막상 시험 결과를 보니 점수가 잘 나와 민사소송법의 덕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변호사님은 암기보다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강조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공감하는 바라 강사님과 fit이 맞다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강조해주셔서 수험생으로서 부담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수강생들에게 워낙 애정이 있으신 분이셔서 공부하면서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i) GS0기: 동영상강의 내용이 너무 생소했어서 이해하는 것과 용어에 익숙해지기에 힘을 들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flow를 잡으려고 애썼고, 암기는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ii) GS1기: 실강 사례 문제에 대한 목차 잡기 시험을 칩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암기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단권화하다 정리가 너무 안되는 느낌이어서 기본서를 새로 하나 샀었습니다.

iii)GS2기: 실강 이때부터는 기본서뿐만 아니라 사례집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사실 이때 강사님이 짚어주시는 쟁점만 공부했는데, 미리 전 범위를 공부할걸이라는 후회가 지금와서는 듭니다.

iv) GS3기: 실강 단문 암기가 너무 안돼서 직접 녹음 파일을 만들어 들고 다녔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어 진작 녹음 파일 만들걸 하고 후회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이해가 안되도 우선 암기하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수험에는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v) 최종 한달 c급은 한번만 보고 a급, b급 위주로 회독하였습니다. 6일-5일-2일-2일-2일로 끊어서 공부했습니다. 단문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신정운 법무사님이 출제 한 모의고사도 한번 훑고 갔었습니다.

■ 면접 준비 과정

3차 시험(면접)의 경우 그간 3차 시험 기출 문제를 위주로 답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었습니다. 또한 2차 시험 공부할 때 사용했던 노동법 기본서를 1회독 하려고 했는데, 결국적으로 저는 1회독에는 실패했었으나 합격했습니다. 사실 공인노무사 3차 시험의 경우, 탈락자가 많지는 않다 보니 새롭게 많은 내용을 공부하려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수험생활을 하며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걸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3차 시험장에서도 압박 면접 같은 느낌이 아니었고,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 수험생활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1 차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2 차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고, 공부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 차 시험에 합격해야 2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에

1 차 시험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갈수록 1 차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 1 차 시험일을 앞둔 몇달 동안은 1 차 시험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S2 기 및 GS3 기 때에는 모의고사 점수가 낮아 불안했었습니다. 특히 노동법의 경우 모의고사 최하위권에 든 적이 잦았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고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극복 방법은 회독 수를 늘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 합격으로 이끈 나만의 학습 전략 KEY POINT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기. 지금 당장 모의고사 점수가 낮게 나오고, 판례 암기가 잘 안되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단기 프리패스를 활용해 이동 시간 및 쉬는 시간에 강의를 반복해 들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노무사단기의 경우 배속 제한이 없어 이를 신경 쓰지 않고 편히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꼭 노무사단기 프리패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프리패스를 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합격하면 환급도 되어서 손해볼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